

융합전공생 차등 대우 논란

융합전공, 교육과정과 다른 수강 현실

정정기간부터 수강신청 가능
“제1전공생 TO도 모자라”
안정적 운영 위한 지원 필요

학생들에게 다양한 강의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본교 융합전공 제도에서 수강생들의 강의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본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제1전공 뿐 아니라, 제2전공이나 심화전공의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제2전공에는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이 있다. 융합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

(부)가 융합해 개설한 융복합 과정을 이수하는 제도다. 융합형 인재 배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2004년 연계전공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고 2014년 융합전공으로 명칭을 바꿨다. 융합전공 신청 학생은 교육과정에서 정한 3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융합전공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학문 분야를 나눠 영역별 이수 학점을 정한다. 예를 들어, ‘사회규범과행정’ 융합전공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과목 3학점 이상, 행정학과 과목 3학점 이상씩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다르게 수강

신청 기간만 되면 필요한 강의를 수강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다. 융합전공 교육과정표에 있는 강의지만 정정 기간에만 강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제1전공생만 들을 수 있다’는 이유로 수강을 거부당한다. 지난 2학기 수강 신청 과정에서 일부 융합전공 수강 학생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제1·이중전공보다 늦게 수강신청
허성민(문과대 국문18) 씨는 미디어학부 강의를 듣고 싶어 미디어학부가 참여한 ‘인문학과문화산업’ 융합전공에 진입했다. 해당 융합전공에는 9개의 미디어학부 전공 강의가

포함됐지만 허 씨는 미디어학부 전공 강의를 신청할 수 없었다. 수강과목 설명에는 ‘융합전공생은 학년 정정 기간부터 신청 가능’이란 문구가 붙어 있었다. 학년 정정 기간이 되자 이미 강의는 빈자리가 없었다. 그는 “융합전공생이라 차별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디어학부 강의를 듣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전공 제도를 통해 수업을 듣고 있다. ‘패션디자인및머천다이징’ 융합전공에 포함된 일부 디자인조형학부 수업 역시 수강 정정 기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수현·조경준 기자 press@
» 2면으로 계속

유명무실 지도교수제, 관리 체계 마련해야

이름		배정된 (명) 강의	
성명		교수명	
성명		배정가능	
배정가능		배정가능	
배정가능		배정가능	
배정가능		배정가능	
배정가능		배정가능	
배정가능		배정가능	
배정가능		배정가능	
배정가능		배정가능	

지도교수가 쿠키아비에 상담 가능 시간을 표시하지 않아 온라인 상담신청이 어렵다.

학생들의 학업 증진과 진로 상담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본교 지도교수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교는 학칙 제54조 ‘학생의 학업, 학교생활, 진로 및 인권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상담센터, 인권센터, 지도교수 등을 둘 수 있다’에 따라 지도교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학부 지도교수들은 무작위로 배정되며, 온라인 면담 신청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교수제를 총괄하는 학교 부서도 명확하지 않다. 사범대 22학번인 최모 씨는 “지도교수가 누구인지 모른다”며 “취업 고민이나 학교생활과 관련해 상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학생 특성 고려 않는 지도교수 배정
현재 지도교수와의 상담은 본교 포털(KUPID)이나 쿠키아비(KUchive)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수가 상담 가능 시간을 사이트에 표시해 놓지 않으면, 온라인으로의 신청이 불가능하고 직접 연락해야 한다. 본지가 확인한 문과대, 공과대, 경영대 교수들은 상담 가능 시간이 표

시돼있지 않았다. 정보개발부 직원 김선일 씨는 “포털에서 신청하려면 교수님이 자기 일정을 매번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경대 22학번인 김모 씨는 “포털에서 신청할 수가 없어 교수님께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도 4일이 지나도록 답이 없어 연구실을 무작정 찾아가야 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학생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도교수 배정 방식도 문제다. 본교는 지도교수에게 학생을 무작위로 배정한다. 진현준(미디어17) 씨는 “교수님과 관심 분야가 전혀 달라서 조언을 구하기 어렵다”며 “학생의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 혹은 입학 전 조사 등을 통해 학생과 교수의 관심 분야를 맞춰 지도교수를 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복리(보과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는 “배정받은 학생들의 진로가 제 전공과 다를 때 자세한 상담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글 | 박지연·배연수 기자 press@
이미지출처 | 쿠키아비
» 3면으로 계속

냉난방 불안정, 공간 부족... 학생 활동 방해하는 학생회관



진달래관 조정실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나무편지가 쌓여있다.



복도에 방치 된 나무 막대기는 동아리 연습과 학생들의 통행을 방해한다.

동아리방과 서점, 우체국 등이 위치한 세종캠퍼스 학생회관은 냉난방 문제와 공간 낙후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들은 학생회관 리모델링과 전기용량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정진택 총장이 제20대 고려대학교 총장 후보자 공약으로 학생회관 리모델링을 약속했으나 임기가 끝나가도록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전력 문제로 냉난방 어려워
세종 학생회관은 에어컨이 없는

방도 있다. 그럴 경우, 학생들이 사비로 설치해야 한다. 연극 동아리 ‘썸’의 부원인 송민주(글로벌대 융합경영22) 씨는 “선배들이 돈을 보태 에어컨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영상·영화제작 동아리 ‘영상놀’ 회장 이서준 씨는 “현재 동아리방에는 에어컨이 없다 보니 여름에는 동아리 방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에어컨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도 있다. 밴드 동아리 ‘무단외박’ 부원 차해빈(글로벌대 글로벌학부22) 씨는

“합주 검사 날에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고생했다”며 “하루종일 틀어도 시원하지 않아서 힘들다”고 말했다. 허정재 세종부총학생회장은 “학생회관 에어컨은 대부분 1997년 식이고 총학생회실 에어컨은 물이 새서 가동할 때마다 물을 치워야 한다”고 전했다.

겨울이 여름보다 더 힘들다는 학생도 있다. 고은 세종총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겨울에 전기가 자주 차단돼 활동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학생회관은 난방을 위해 구형 라디에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구형 라디에이터는 1~3kW로, 2kW 라디에이터를 사용하면 9A가 소모된다. 학생회관의 차단기는 3~4구역마다 하나씩 설치됐으나, 차단기 용량은 20A에 불과하다. 구형 라디에이터를 써 전력 수요는 많지만, 이를 감당할 차단기는 오히려 부족하다.

글 | 최민서 기자 frog@
사진 | 김태윤 기자 orgnmind@
» 2면으로 계속

지면안내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학년도 전기 내국인전형 모집

모집 일정

모집 기간

2022년 10월 04일(화) ~ 17일(월)

입학 시험

2022년 11월 19일(토)

※ 대학원 법학과, 디자인조형학부는
2022년 11월 18일(금) 예정

합격자 발표

2022년 12월 15일(목) 예정

문의사항

• 홈페이지

https://graduate.korea.ac.kr

• 이메일

graduate1@korea.ac.kr

• 유선전화

02-3290-1357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https://graduate.korea.ac.kr) 참조



고려대학교 대학원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